

개정관리제도(RMS) – 믿어도 좋은가?

포경 규제의 역사적 남용에 대한 새 보고서와 새로운 계획으로 포경의 부활이 예고되고 있다.

수백 년 간 상업적 이득을 위한 무제한적 포경으로 고래들은 대규모 살육을 당해 왔다. 심지어는 1946 년 국제포경위원회(IWC)가 발족된 후에도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업 포경은 그칠 줄 몰랐고, 그 결과 여러 종의 고래들이 잇따라 멸종 위기에 처하는 극한 상황에 몰렸다. 수 십 년 동안, 대여섯 개의 포경 국가를 통해 불법 포경으로 희생된 고래의 숫자만 수 만에 이른다. 이들 국가는 처벌은 물론 IWC 의 조사도 받지 않은 채 보호종을 살육하고, 포경 금지기간에 보호구역에서 버젓이 포경행위를 하였으며, 어린 고래들까지 거침 없이 도살한 뒤 조직적인 보고 누락과 축소 보고로 자신들의 폭력 행위를 은폐하였다. 이는 IWC 의 규정이 너무 취약했던 나머지 해당국들의 준수를 이끌어내지 못한 측면도 가지고 있다. 예로, 구소련은 30 년에 걸쳐 최소 9 만 마리를 포경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일본의 포경회사들 또한 자신들의 포경 규모를 축소 보고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1982 년, 고래의 개체수가 상업 포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뚜렷하 감소하기 시작하자, IWC 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일시 포경 중단(Moratorium)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1986 년 완전 발효되었다. 대부분의 포경 국가들은 이를 존중했고, 포경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갔다. 그러나, 아이슬란드와 일본은 이를 어기고 IWC 조약 VIII절의 학술 연구를 위한 예외규정을 빌미로 상업 포경을 계속하였다. 올해, 일본은 ‘학술 연구’로 위장하여 북태평양에서 10 마리의 향유고래, 50 마리의 열대고래, 100 마리의 보리고래, 220 마리의 밍크고래를 포획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남극에서 학술 연구를 위한 포경을 늘려 매년 약 900 마리의 밍크 고래를 포획하고 흑등고래와 참고래를 각각 10 마리씩 추가 포획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982 년, 노르웨이는 일시 포경 중단에 반대한 결과 발효 대상에서 면제되어 1993 년 상업 포경을 재개하였으며, 올해 북대서양에서 밍크 고래 포획을 약 800 마리로 늘릴 계획이다. 노르웨이는 자체 할당량 포획량을 연간 1800 마리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학술적 포경을 시작할 계획이다.

슬며시 고개를 드는 포경을 ‘다시 억제’하기 위해, IWC 는 수 년간 상업 포경에 대한 새로운 관리기구인 소위 개정관리계획(RMS)를 협의해 왔다. 일본은 RMS 가 2005 년 6 월 회담에서 채택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항의로 IWC 를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RMS 를 결론지으라는 포경 국가들의 거센 압력 때문에, 다른 IWC 회원국들은 현실성도 떨어지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세부사항과 범위에 대한 합의를 받아들여야 할 형편이다. 이런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RMS 의 시행은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학술적 포경을 방지하거나 핵심 조항에 대한 반대 또는 보류를 허용하는 규제의 허점을 보완하지 못할 뿐더러, 부적절하고, 일관되지 않는 애매한 법적 용어가 수두룩하다. 요컨대, RMS 는 근본적 결함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고래보다 눈속임과 과잉 포획에 훨씬 덜 취약한 어종의 포획을 관리하기 위해 현대 수산 조약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야생동식물 보호협회(Pro Wildlife), 국제인도주의협회(HSI), 고래/돌고래 보존협회(Whale and Dolphin Conservation Society)가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는 포경 국가들이 과거 IWC 규정을 어떻게 무시해 왔는지에 대한 독특한 비평이 실려 있다. 이는 RMS 를 포경 국가들이 준수하고

개정관리제도(RMS) – 믿어도 좋은가?

포경 규제의 역사적 남용에 대한 새 보고서와 새로운 계획으로 포경의 부활이 예고되고 있다.

있는 다른 수산업 협약과 비교하고, RMS 가 향후 상업 포경을 적절히 규제할 여력이 있는 지를 평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IWC 가 유구하고 불명예스런 역사의 잘못과 재앙을 조만간 되풀이하고 말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